

반영웅 빛사관 이시광

어떤 일에 대한 애정과 헌신대응에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어려움을
수용하고 오직 한길만 걸어온 사람들을 두고 '거룩한 바보들'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정의로는 사회는 원래 성직자들을 지칭했다는 이들
거룩한 바보들의 무한한 행진에 의해서만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약 4000여의 작고 큰 여성단체들이 우리 딸들이 더이상
'여자'라는 이름 하나로 차별받고 소외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에는 성평등사회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며 현장에서 자신의 열정과 시간을 바쳐 묵묵히 일하는
활동가들이 있다. 그들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당찬 여성공익활동가들
로서 거룩한 바보들이다.

여성단체의 활동가들은 활동비에도 못미치는 박봉과 자기생활이
안락한 고된 업무를 감수하면서 여성의 눈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부당한 인권침해 모인을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곤 하지만 보람이야 어디까지나 '자기소진'이라는 현상에 부딪치게 마련이다.

<장래여행 그리고 김호흡>이라고 명명된 빛사관의 프로젝트는 바로
활동가들이 자기소진 상태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국내외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원이다. 몇 단체의 공동행사로 마련되는 캠프,
여행, 캠페인, 수련회, 회의참가, 워크숍 등을 통해 여성단체 실무자들이
상호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활동가로서의 자기정체성 확립과 여성운동
에 대한 비전의 재발견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여성공익활동가들의 큰 환영을 얻고 있다.

그런데 2003년에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여성동인 회합 찾기'
'여성노동운동가 재충전'을 위한 '미중수련 및 워크 프로그램' 등의 이름으로
16개 팀이 추진한 <활동가 지원>을 위해서 <장래여행 그리고 김호흡>
행사에 85개 단체의 실무자들이 참여 했다.

2004년도 지원사업은 4월에 사업공고 → 5월에 여행재무 →
6월에 캠프 및 워크 → 7월~12월 프로그램 실시 → 2005년 1월 최종
평가회의 진행을 거쳐서 실시하게 된다.

내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으로 20개 팀의 활동을 지원하게 되
는데 이 사업추진을 <교보생명 사회공헌팀>과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재단으로써는 첫 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평택에서 개최된
한국여성재단과 교보생명명이 공동주최한 문화재단의 후원이 <비엔나
소녀 합창단> 초청 공연의 자리에서 교보생명이 2004년도 예산으로
을 쾌척하여 줌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셈이다.

이것은 기자의 사회공헌팀들이 여성운동을 위한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
의 기치를 일궈내기 위해 이루어낸 것을 의미하는데 밝은 앞길을 기대하게 한다.

30

여성노동자

<짧은 여행 그리고 긴 호흡>

박영숙(본재단 이사장)

어떤 일에 대한 예정과 현실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오직 한길만 걸어온 사람들을 두고 '거룩한 바보들'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정의로운 사회는 원래 성직자들을 지칭했다는 이들 거룩한 바보들의 부단한 행진에 의해서만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약 4,000개의 작고 큰 여성단체들이 우리 딸들이 더 이상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차별받고 소외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에는 성평등 사회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며 현장에서 자신의 열정과 시간을 바쳐 묵묵히 일하는 활동가들이 있다. 그들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당찬 여성공익활동가들로서 거룩한 바보들이다.

여성단체의 활동가들은 활동비에도 못미치는 박봉과 자기생활이 있을 수 없는 고된 업무를 감수하면서 여성의 눈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부당한 인권침해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다보면 보람이 뒤따르지만 '자기 소진'이라는 현상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짧은 여행 그리고 긴 호흡>이라고 명명된 본재단의 프로젝트는 바로 활동가들이 자기소진 상태에서 벗어나 재충전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몇 단체의 공동행사로 마련되는 캠프, 여행, 탐방, 수련회, 회의참가, 워크숍 등을 통해 여성단체 실무자들이 상호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활동가로서의 자기정체성 확립과 여성운동에 대한 비전의 재발견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여성공익 활동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여성농민 희망찾기' '여성노동운동가 재충전을 위한 마음 수련 및 쉼 프로그램' 등의 이름으로 16개 팀이 추진한 활동가 자신들을 위한 <짧은 여행 그리고 긴 호흡> 행사에 85개 단체의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2004년도 지원사업은 4월에 사업광고→5월에 사업접수→6월에 심사 및 선정→7월~12월 프로그램 실시→2005년 1월 최종평가회의 과정을 거쳐서 실시하게 된다.

내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20개팀의 활동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사업 추진을 <교보생명 사회공헌팀>과 공동으로 하게되어 재단으로서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경복궁에서 개최된 한국여성재단과 교보생명이 공동주최한 문화나눔의 축제인 <민소녀 합창단> 초청공연의 자리에서 교보생명이 2004년도 예산 권역을 쾌척하여 줌으로 내년도 예산은 확보된 셈이다.

이것은 기업의 사회공헌팀들이 여성운동을 위한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의 가치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며 밝은 앞날을 기대하게 한다.

한국여성노동자